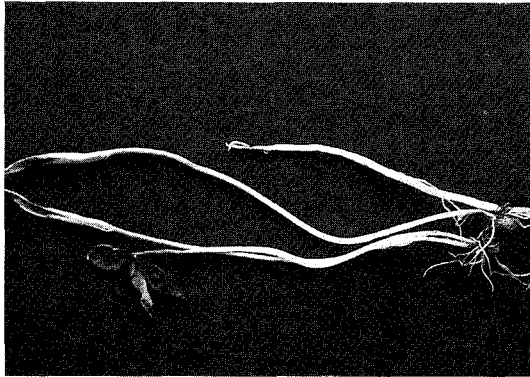


## 반하(半夏)



임 상 철 상지대학교 농대 교수(農博)

### 1. 식물학적 특성 및 용도

#### 식물학적 특성

반하는 천남성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서 전국의 들이나 밭에 자생하고 농민들에게는 다루기 거북한 발잡초로 취급되어왔던 식물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는 일본과 만주에 분포하며 번식력과 생장력이 극히 강한 식물이다. 고

려때의 명칭은 치의모립(雉矣毛立), 치의모자읍(雉矣毛蚤邑)이라고 하였으며 조선시대의 향명은 치모읍(雉毛邑)으로서 음력 5월에 채취하는 약초로 기록되어 있다. 동의보감에는 석물웃 이라고 하여 지금도 지방에 따라서는 끼무릇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학명은 *Pinellia ternata* Breitenbach.

괴경(塊莖)은 지름 5~13mm, 높이 3~10mm 정도로 약간 편압

된 둥근모양의 구경(球莖)이며 표피색은 황백색으로 구경의 윗부분은 줄기가 붙어있던 자육이 오목하게 파여 있다. 구경에서 출현되는 잎은 잎줄기가 10~20cm 정도로 길고 3개의 소엽(小葉)으로 구성된 복엽으로 잎줄기가 거의 없다. 소엽은 길이 3~12cm, 폭 1~5cm로서 둥근 타원형 혹은 긴 타원형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털이 없다. 꽃대는 구경에서 별도로 나오는데 길이가 20~40cm정도 되고 녹색의 불염포 안에는 육수화서가 있다. 화서의 밑부분에는 암꽃이 불염포와 완전히 밀착되어 붙어 있으며 바로 위에 수꽃이 부착되고 열매는 장과(漿果)로서 녹색이며 작다.

### 성분 및 용도

지하의 구경(球莖)을 5~6월에 채취하여 표피를 제거한 후 건조시켜서 약용으로 이용한다. 냄새와 맛이 거의 없으며 약간 점액성이고 나중에 약간의 아린 맛이 난다. 유효성분은 알카로이드 물질인 ephedrine과 choline으로서 정유 0.003~0.013%, homogentisic acid 등을 함유하고 있다.

약효는 거담효과가 커서 담이 원인이 되는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고 진구(%嘔), 진토(%吐)의 효과가 있어서 임신구토(妊娠嘔吐), 급성위장염 등에 효과가 있다. 한방약으로는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 소반하가복령탕(小半夏加茯苓湯), 오적산(五積散), 소시호탕(小柴胡湯) 등에 사용된다.

### 재배 적지

우리나라 전국 각처에 자생하고 있으며 생장력과 번식력이 매우 강한 식물이다.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며 중북부 지방에서는 햇볕이 잘 쬐이는 곳에서, 남부 지방은 여름철 고온기에 약간의 그늘을 만들어 주거나 반음지에서 재배가 잘 된다.

토질도 별로 가리지 않아서 산기슭, 밭, 개간지 등 어디서나 재배가 잘 되지만 이상적인 토양은 배수가 잘 되고 적습하며 유기질이 많은 사용토 혹은 식양토라고 할 수 있다. 서산과 태안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많이 되고 있으며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지역이 재배에 유리하다.

## 2. 재배기술

### 번식법

가장 보편적으로는 괴경으로 증식한다. 괴경을 심으면 1년후 무게가 2배이상 증가되고 자구의 개체수도 10배 이상 증가한다. 종구(種球)는 굵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종구의 종류는 괴경 이외에 열병에 붙은 육아(肉芽)를 이용할 수도 있다.

### 정식 시기 및 방법

정식 시기는 봄과 가을에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다. 봄에는 너무 일찍 정식하면 저온으로 인하여 출현이 지연될 수가 있으며, 또한 종구를 겨울동안 썩이 트지 않고 동해를 입지 않도록 습도와 온도 변화가 적은 땅속에 저장하였다가 이용하여야 한다. 가을 정식의 경우는 너무 늦게 하면 저온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한다.

정식할 토양은 10a(300평)당 완숙퇴비 1,000kg, 유박 150kg, 계분 300kg을 혼합하여 밀거름으로 사용한다. 반하는 화학비료에

약하고 특히 질소비료에 약하므로 유기물을 충분히 사용하여야 수량이 많아진다.

정식밀도는 30cm×10cm에 비하여 10cm×5cm가 400% 증수되어 밀식의 효과가 확실히 인정되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구를 심는 깊이는 5~10cm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얇게 심으면 한발해와 냉해를 입기 쉬우며 반면 너무 깊어 심으면 출현이 지연되고 생육이 부진하게 된다. 10a당 필요 종구량은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100kg 정도이다.

### 비배관리

정식후에는 짚 등으로 피복하면 토양보습과 보온으로 출현이 촉진되고 중북부 지방에서는 겨울철 극한기에 동해를 막을 수 있다. 정식 이듬해 4월과 7월에 10a당 완숙퇴비 1,000kg 정도를 분시하여 추비하면 구경의 비대가 촉진된다. 또한 반하는 초장이 매우 작은 식물로서 다른 잡초가 무성하면 광합성이 저하되므로 중경을 겸한 제초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남부지방에서는 여름철 너무 고온이 될 때에는 약간의 차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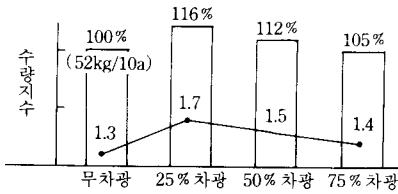


그림1. 여름철 차광이 반하의 수량에 미치는 영향('86 전북도 농촌진흥원) (● : 피경의 무게 g/개)

을 하여주는 것이 생육기간을 연장시키고 고온장해를 막을 수 있으며 피경의 수량이 증대된다.

### 3. 수확 및 조제

#### 수확

반하는 정식 2년후에, 6월하순경 잎이 누렇게 마른후 또는 10월하순에서 11월 상순경 사이에 수확한다. 수확시에 피경이 작은 것은 종구로 확보해두고 큰 것만을 선별하여 조제한다. 수확량은 10a당 건재로서 첫해에는 200kg정도 이고 2년째에는 400kg정도 된다.

#### 조제

수확한 반하는 피경을 깨끗이 씻어서 반하 18ℓ에 모래 2의 비율로 혼합하여 통에 넣은후 물을 가

하여 휘저으면 걸썩질이 벗겨진다. 걸썩질을 벗긴후 깨끗한 물에 씻어서 모래와 불순물을 제거한후 24시간 물에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화력건조나 천일건조로 말려서 포장한다. 잘 건조된 것은 표피와 내부 육질이 백분(白粉)이 생길 정도로 백색이어야 상품이 된다. 건조시에 피경의 탈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석회를 묻혀서 건조하기도 하는데 보통 1주일 정도면 건조가 완료된다. 건조가 불량하여 검은색이나 갈색인 것은 불량품으로 상품가치가 없어진다. 1990년도의 월별 평균가격은 건재 600g당 9,530원 이었다.

**\*\* 농산물이 공산품에 버금가는 상품으로서 대접받기 위하여는 부단한 농민의 노력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 적작물을 선택하고, 탁월한 재배 기술로, 지성을 담은 매만짐으로, 수확후 관리도 철저히 하여 상품화 하였을때 팍훌럼의 댓가에 상응하는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농촌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녹색의 싱그러움이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연재를 마칩니다.**